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誠庵本『瑜伽師地論』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李丞宰 · 安孝卿**

요 약

初雕大藏經의 일종인 誠庵本『瑜伽師地論』卷第5와 卷第8의 角筆 符號口訣을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발견하게 된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再雕本의 底本으로 이용되었다. 板式 및 漢字 字形이 서로 같으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자료의 本文 漢字에는 후대에 잘 쓰이지 않는 略體字, 古字, 異體字 등이 다양하게 쓰였다. 이들과 周本『華嚴經』卷第22에 나오는 한자를 비교하여『瑜伽師地論』의 漢字가 古形임을 논의하였다. 角筆 符號口訣을 判讀할 때에 주의하여야 할 점을 부호의 位置와 種類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判讀의 難解性을 강조하였다. 다른 자료에 비하여『瑜伽師地論』에서는 符標에 속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일부 符標의 機能을 수정하면서 點吐의 分析 可能性을 다시 강조하였다.

*핵심어: 각필, 부호, 구결, 점토, 유가사지론, 화엄경, 대장경

---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도 인문학육성지원사업(과제번호, KRF 2000-045-A10101)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이 資料를 調査할 수 있게 도와준 誠庵 趙炳舜 館長님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 그리고 한국의 角筆 資料 發見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小林芳規, 西村浩子 先生님과 이 자료를 같이 조사한 南豊鉉, 尹幸舜 先生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드린다.

** 李丞宰(가톨릭대학교 교수), 安孝卿(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이 글은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에 나오는 角筆 符號口訣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몇 문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 자료에 대한 書誌 사항과 원문에 쓰인 漢字의 字形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 자료가 初雕大藏經의 하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漢字의 字形 중에는 특이한 것이 많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 자료에 기록된 符號口訣 判讀上의 몇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판독의 難解性을 강조하고자 한다. 각필 부호가 어느 위치에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부호가 쓰인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 자료에 나오는 符號 즉 符標와 點吐를 정리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잘못된 점을 수정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필 부호 구결 자료의 판독 예를 간단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2. 書誌와 本文 漢字

2.1. 書誌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다음부터는 '이 자료'라고 칭한다)은 初雕大藏經의 일종으로서 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이다.[1] 이 자료의 書

1) 李丞宰는 이 자료의 肉眼 移點本을 만들어 일부의 전문가에게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光學 寫眞本과 디지털 CD本과 대조해 본 결과 여러 군데에서 잘못 移點한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修正本을 만들어 새로 배포할 예정

誌에 대해서는 이미 李丞宰(2000)과 南豊鉉(2000나)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자료의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과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만 골라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北宋의 開寶勅板(974년)을 底本으로 하는 初雕大藏經의 일종이다.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로 미루어 쉽게 알 수 있다.

(1) 가. 초조본의 서체로는 方筆의 歐體가 주로 이용되는데, 이 자료의 서체도 구체이다.
나. 초조본에는 '敬, 竟' 등의 避諱缺劃字와 避諱兼諸字가 보이는데, 이들이 이 자료에서도 발견된다.
다. 초조본은 각 張이 23行 14字가 기본인데 이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단, 첫 張은 22행이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이 자료가 초조본의 일종임이 금방 드러난다.

그런데 每張을 23行으로 일정하게 배열하였으면서도 每行을 14字로 排字하지 않은 곳이 자주 눈에 띈다. 13字나 15字를 배자한 곳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問 以 誰 爲 先 誰 爲 建 立 誰 和 合 故 (5:11,2)[2]
나. 爲 纏 深 難 渡 故 順 流 漂 故 名 暴 流 (8:7,9)
(3) 가. 攝 受 故 士 用 攝 受 故 諸 行 轉 如 欲 繫 法 (5:13,5)
나. 應 尋 伺 求 者 謂 如 有 一 以 非 法 及 不 兇 (5:18,16)
다. 有 喜 樂 三 引 攝 離 喜 樂 復 有 四 種 隨 轉 (5:20,3)
라. 或 分 一 百 二 十 八 煩 惱 謂 卽 上 十 煩 惱 (8:2,11)
마. 斷 爲 常 若 分 別 若 不 分 別 染 汚 慧 爲 體 (8:3,11)

이다.

2) '5:11,2'는 『瑜伽師地論』 5卷 11張 2行을 뜻한다.

바. 棄 而 希 望 故 不 淸 而 取 者 謂 於 所 竟 物 (8:11,22)

(2)의 예는 13字를 배자함으로써 14字 원칙을 어겼다. 이들 뒤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원칙을 어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들 行은 下邊 끝까지 글자를 채웠으므로 이들 뒤에서 段落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3)은 15字를 배자함으로써 원칙에서 벗어난 예들이다. 역시 이처럼 배자한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2~3)의 예들은 失手로 14字를 어겼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가. 爾 是 故 依 无 障 导 依 處 施 設 不 相 違 因 (5:14,23)
나. 士 用 果 依 所 餘 因 緣 依 處 施 設 增 上 果 (5:15,8)
다. 彼 因 依 處 故 彼 怖 所 生 故 任 運 現 行 故 (8:5,17)
(5) 가. 體 所 緣 行 相 等 起 與 差 別 決 擇 及 流 轉 (5:16,11)
나. 依 處 及 與 事 求 受 用 正 行 二 菩 提 資 糧 (5:18,2)
다. 自 性 若 分 別 因 位 及 與 門 上 品 顚 倒 攝 (8:1,9)
라. 自 性 若 分 別 因 位 及 與 門 增 上 品 顚 倒 (8:9,14)

반면에 (4~5)의 예들이 14字를 어긴 것은 意圖的 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의 예 다음에서는 '復次' 또는 '云何'로 시작된다. 즉 새 단락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럴 때 14字 원칙을 지키면 앞 단락의 마지막 行에는 하나의 글자만 오게 된다. 1字로써 1行을 채우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단락 끝의 마지막 1字를 바로 앞 行에 갖다 붙인 것이다. 그 결과 단락의 마지막 行이 15字로 끝나게 된 것이므로 이것은 의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5)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모두 五言絶句의 轉句까지를 한 行에 몰아넣다 보니 15字가 된 예이다. 따라서 이들도 意圖的으로 15字를 排字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漢文 本文을 校正한 곳이 있어 주목된다. 漢字가 하나 누락되었음을 표시하는 '。'를 下邊右側에 친 다음 欄上에 추가할 한자를 붓으로 적어 넣었다.

(6) 若 無 色。及 業 爲 建 立 助 伴 所 緣 爲 和 (5:10,4)

'色'字의 하변 우측에 '。'를 치고 그 行의 欄上에 '依'를 黑墨으로 써 넣었다. 이것은 板木에서 '依'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3] 무엇을 참고하여 이처럼 교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再雕本에서 '依'를 추가한 것을 보면 이 교정이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난상에 기입해 넣은 이 '依'字의 左上 위치에 角筆로 單點[·]을 찍어 넣어 더욱 흥미롭다. 이것은 각필 구결을 달기 전에 本文 교정이 이루어졌거나 本文을 교정함과 동시에 각필 구결을 달았음을 뜻한다. 本文의 곳곳에서 붓으로 써 넣은 듯한 黑墨이 발견되는데, 이 붓 자국과 난상의 '依'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문을 교정함과 동시에 각필 單點을 찍은 것으로 간주해 둔다.

誠庵本『瑜伽師地論』卷第5를 再雕本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板式이 같고 漢字의 字形이 서로 일치한다. 재조본은 誠庵本의 覆刻本인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다. 後述할 여러 한자의 異體字도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再雕本의『瑜伽師地論』卷第5는 誠庵本 계통의 初雕本을 底本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初雕本인 誠庵本과 再雕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고려의 高僧 守其가 여러 판본을 대조하여 교감한 후에 再雕本을 제작하였음이 잘 드러난다.

---

3) 광학 사진본과 디지털 CD본에는 欄上의 '依'가 나오지 않는다. 사진을 찍을 때 欄上을 빼고 찍은 것이므로 이 점에 주의하길 바란다.

(7) 가. 所 成 事 六 餘 修 所 成 事 七 簡 擇 所 成 (초조본 5:18,14)
事 八 攝 益 有 情 所 成 事 如 理 作 意 相 (초조본 5:18,15)
應 尋 伺 求 者 謂 如 有 一 以 非 法 及 不 兇 (초조본 5:18,16)
險 追 求 財 物 不 以 非 法 及 兇 險 如 理 (초조본 5:18,17)
作 意 相 應 尋 伺 受 用 者 謂 如 卽 彼 追 (초조본 5:18,18)
나. 所 成 事 六 餘 修 所 成 事 七 簡 擇 所 (재조본 5:18,14)
成 事 八 攝 益 有 情 所 成 事 如 理 作 (재조본 5:18,15)
意 相 應 尋 伺 求 者 謂 如 有 一 不 以 (재조본 5:18,16)
非 法 及 不 兇 險 追 求 財 物 如 理 作 (재조본 5:18,17)
意 相 應 尋 伺 受 用 者 謂 如 卽 彼 追 (재조본 5:18,18)
(이상의 밑줄은 필자가 친 것임)

초조본의 밑줄 친 '以非法'이 재조본에서 '不以非法'으로 修正되었다. 또한 초조본의 '不以非法及兇險'이 재조본에서 削除되었다. 글자로는 6字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를 재조본에서는 한 行에 13字를 排字함으로써 수정하였다. 즉 재조본에서는 14행에서 18행까지 각각 13字를 배치함으로써 14행에서 1자, 15행에서 1자, 16행에서 2자,[4] 17행에서 1자, 18행에서 1자를 각각 줄인 것이다. 그 결과 초조본과 재조본은 『瑜伽師地論』 卷第5의 18張 14行부터 18行까지 모든 한자의 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수정한 곳과 삭제한 곳 또는 추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本文 校勘을 철저히 하여 재조본을 편찬하였음을 뜻한다.

2.2. 避諱字

이 자료에 나오는 避諱字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적이

4) 초조본은 매행에 14자가 원칙이지만, 이곳의 16행에는 15자가 排字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2자가 준 셈이다.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일일이 서술해 보고자 한다.

(8) 敬(경, 공경할)의 마지막 劃을 缺하여 피휘한 字 : (5:18,23)
(9) 竟(경, 다할)의 마지막 劃을 缺하여 피휘한 字 : (5:3,11) (5:4,4) (8:5,21) (8:6,5) (8:19,8) (8:19,11) (8:19,14) (8:20,2) (8:20,5) (8:20,8) (8:20,10) (8:20,13) (8:20,18)
(10) 竟(경, 다할)의 '立'을 반복하여 피휘한 字 : (8:7,20) (8:11,22)

(8) (9) (10)[5]



(8)은 宋太祖(趙匡胤)의 祖父의 諱가 '敬'이므로 이를 피휘한 것이다. 피휘 방법으로는 末劃를 缺劃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9)는 '敬'과 同音인 '竟'을 피휘한 것인데 피휘 방법은 위와 같다. (10)은 피휘 방법이 (9)와 다르다. 즉 '竟'의 '立'을 兼字한 것이다.

이처럼 송 태조의 祖父에 대해 피휘한 것은 이 자료의 底本이 開寶勅板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 자료가 初雕本의 일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6]

---

5) 사진자료는 모두 『유가사지론』에서 딴 것이다. 『화엄경』의 한자 사진은 번거로움을 피하여 싣지 않았다.
6) 初雕本 중에는 宋本系列이 아닌 것도 있다. 湖林博物館 소장의 初雕本 『月燈三昧經』 卷第十(惟函)과 『僧伽吒經』 卷第四(使函)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避諱缺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契丹本을 底本으로 한 國後本일 가능성이 크다. 再雕本 『月燈三昧經』 卷第十에는 '敬'의 피휘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再雕本이 初雕本과 달리 宋本系列임을 말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成保文化財團(1988)을 참고하였다.

2.3. 漢字

이 자료에는 特異한 漢字가 많이 나온다. 특이한 한자는 대체적으로 그 시대의 書風을 반영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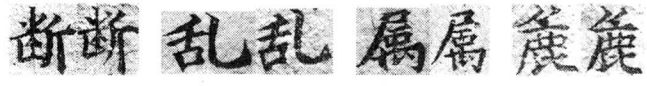
이 자료에 나오는 특이한 한자를 정리해 보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再雕本의 한자와 字形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正諧字는 물론 각종 異體字에서도 일치한다. 따라서 初雕本과 再雕本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하지 않고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반면에 周本『華嚴經』卷第22의[7] 한자 자형과 이 자료의 자형은 사뭇 다르다. 이 글에서는 이 차이를 강조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 略體字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8]

(11)『瑜伽師地論』의 약체자

가. 斷(단, 끊을) (8:1,18)≠(주22) 나. 亂(란, 어지러울) (8:9,1)≠(주22)

다. 屬(속, 엮을) (8:15,21) 라. 麤(추, 거칠) (8:10,3)



'斷, 亂, 屬, 麤' 등의 正諧字는 이 자료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다.[9] 그 대신에 이들의 略體字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들을 통하여 일찍부터 약체자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약체자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목된다. 이해

---

7) 이 자료도 誠庵古書博物館 소장본이다. 이 자료의 각필 구결에 대해서는 李丞宰(2001가)를 참고하기 바란다.

8) 두 자료의 한자 자형이 서로 같으면 '='으로 서로 다르면 '≠'로 표시하되, 비교할 한자가 없으면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다.

9) '亂'의 正字가 (5:5,4)에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약체자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의 편의를 위하여 『瑜伽師地論』과 周本 『華嚴經』 卷第22에 나오는 한자를 대비해 놓았다.

(12) 『瑜伽師地論』의 古字

가. 間(간, 사이) (5:4,22) = (주22) 本(본, 밑) (5:3,19) = (주22)

나. 珎(진, 보배) (8:13,16)



다. 弥(미, 두루) (8:1,2)≠彌(주22) 導(애, 그칠) (5:11,13)≠礙(주22)
獫(염, 물릴) (8:14,16)≠厭(주22) 尒(이, 너) (8:2,22)≠爾(주22)
莊(장, 풀 성할) (5:5,2)≠莊(주22) 寘(최, 가장) (8:14,23)≠最(주22)
盖(개, 덮을) (8:7,2)≠蓋(주22)



'間'자의 '日'은 이 자료에는 거의 대부분 '月'로 나온다. '本'자는 '大' 밑에 '十'이 온 자이다. '弥'자를 '彌'로 적은 예는 『瑜伽師地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導'자는 '石' 변이 없는 채로 쓰였다. '獫'자는 '厭'에서 '厂'을 뺀 것이고, '莊'자에는 草頭가 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이 '艹'로 바뀌어 쓰였다. '珍'자와 '最'자는 각각 '珎'과 '寘'로 적히고, '盖'자는 '蓋'로 적히는 일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한자를 略體字라고 부를 수도 없고 막연히 異體字라고 하기도 어렵다. 약체자라면 획이 생략된 것이 많아야 할 것이고 이체자라면 어떤 측면에서 이체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无'와 '無'를 들 수 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无'가 '無' 자리에 온 예가 많고 현대로 내

려올수록 '无'는 '無'로 교체되어 나타난다.[10]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略體' 또는 '異體'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따라서 (12)의 여러 예나 '无'字를 古字라는 명칭으로 아울러 보기로 한다. 이들은 이른 시기의 자료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근대나 현대의 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한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아직 거론되지 않은 異體字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11] 현대의 正諧字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한다.

우선 이 자료에 나오는 한자로서 周本『華嚴經』卷第22에서 자형이 바뀌는 예들을 들어보기로 한다. 周本『華嚴經』卷第22는 契丹本『華嚴經』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1세기 후반기의 자료에 속한다(南豊鉉 2000나:10~12). 따라서 11세기 전반기의 자료인 이 자료와는 계통이 다른 셈이다. 특히 이『瑜伽師地論』은 北宋의 開寶勅板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契丹本 계통인 周本『華嚴經』卷第22와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3)『瑜伽師地論』과 周本『華嚴經』의 자형이 서로 다른 예

覺(각, 깨달을) (5:10,7)≠覺(주22)　擧(거, 들) (8:4,11)≠擧(주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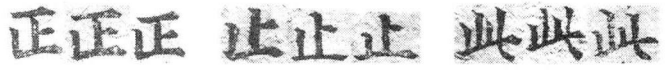
與(여, 줄) (8:1,9)≠與(주22)　學(학, 배울) (8: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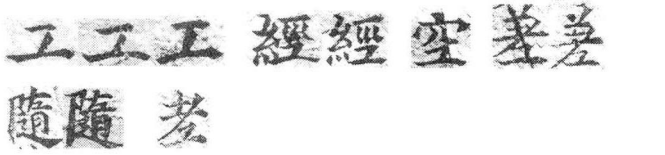
10) 한 예를 들면『瑜伽師地論』卷第5와 卷第8에서는 '无'와 '無'가 같은 환경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나 周本『華嚴經』卷第22에서는 '无'는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 '無'가 쓰였다.『瑜伽師地論』보다 周本『華嚴經』이 후대의 자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1) 여기에 제시한 모든 漢字가 '이체자'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俗字도 있을 것이고 異體字라고 하기에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異體字'가 편의상의 명칭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正(정, 바를) (8:3,5)≠正(주22)　止(지, 발) (5:10,23)≠止(주22)
此(차, 이) (8:4,19)≠此(주22)



工(공, 장인) (5:10,22)　經(경, 날) (8:13,12)≠經(주22)
空(공, 빌) (5:8,22)≠空(주22)　差(차, 어긋날) (8:7,1)≠差(주22)
隨(수, 따를) (8:7,2)≠隨(주22)　老(로, 늙을) (5:3,15)



鬼(귀, 귀신) (5:6,7)≠鬼(주22)　流(류, 흐를) (8:6,17)≠流(주22)
富(부, 가멸) (5:7,22)　恭(공, 공손할) (5:18,23)≠恭(주22)



德(덕, 덕) (8:6,3)≠德(주22)　燒(소, 사를) (8:7,3)≠燒(주22)
廣(광, 넓을) (5:1,22)≠廣(주22)　惡(악, 악할) (5:2,15)≠惡(주22)



勤(근, 부지런할) (5:10,21)≠勤(주22)　對(대, 대답할) (8:2,22)≠對(주22)
勢(세, 기개) (5:14,2)≠勢(주22)　熱(열, 더울) (5:3,18)≠熱(주22)
熟 (숙, 익을) (8:6,1)≠熟(주22)



來(래, 올) (5:4,12)≠來(주22)　雜(잡, 섞일) (8:1,5)≠雜(주22)
滿(만, 찰) (8:14,23)≠滿(주22)　從(종, 좇을) (8:3,8)≠從(주22)



滅(멸, 멸망할) (8:2,15)≠滅(주22)　微(미, 작을) (8:8,22)≠微(주22)
發(발, 쏠) (5:13,18)≠發(주22)　聲(성, 소리) (5:19,2)≠聲(주22)



轉(전, 구를) (5:6,16)≠轉(주22)　繫(계, 맬) (5:2,23)≠繫(주22)
眞(진, 참) (5:4,23)≠眞(주22)　顚(전, 꼭대기) (8:1.9)≠顚(주22)



緣(연, 가선) (8:3,17)≠緣(주22)　怨(원, 원망할) (5:3,6)≠怨(주22)
慢(만, 게으를) (8:2,1)≠慢(주22)　壞(괴, 무너질) (8:3,14)≠壞(주22)



或(혹, 혹) (8:1,19)≠或(주22)　摠(총, 모두) (8:10,7)≠惣(주22)
照(조, 비출) (5:2,6)≠照(주22)　解(해, 풀) (8:3,23)≠解(주22)



若(약, 같을) (8:1,9)≠若(주22)　爲(위, 할) (5:2,11)≠爲(주22)
餘(여, 남을) (5:11,6)≠餘(주22)　除(제, 섬돌) (5:19,7)≠除(주22)



害(해, 해칠) (5:9,12)　蜜(밀, 꿀) (5:19,4)≠蜜(주22)
切(체, 온통) (8:5,22)≠切(주22)　藏(장, 감출) (5:6,5)≠藏(주22)



所(소, 바) (8:1,18)≠所(주22)　那(나, 어찌) (8:9,11)≠那(주22)
疑(의, 의심할) (8:2,4)≠疑(주22)



處(처, 살) (8:5,17)≠處(주22)　　修(수, 닦을) (8:1,18)≠修(주22)
惱(뇌, 괴로워할) (8:1,6)≠惱(주22)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주 많은 예에서 한자의 자형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瑜伽師地論』이 北宋 계통임에 반하여 周本 『華嚴經』 卷第22가 契丹 계통임을 방증해 준다.

위의 여러 예를 통하여 周本 『華嚴經』의 한자는 現代의 한자와 대체적으로 一致하지만 『瑜伽師地論』의 한자는 상대적으로 不一致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瑜伽師地論』의 한자 자형이 상대적으로 古形에 속한다는 점과 後代에는 契丹本 계통의 한자가 크게 유행하였음을 뜻한다. 실제로 宋代에 俗字나 異體字가 아주 많이 생겨났음을 감안하면 『瑜伽師地論』에서 이처럼 특이한 자형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12]

현대의 한자와 자형에서 차이가 나는 것만을 대상으로 삼을 때, 『瑜伽師地論』의 한자 자형으로서 周本 『華嚴經』에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많지 않은 편이다.

(14) 『瑜伽師地論』과 周本 『華嚴經』의 자형이 서로 일치하는 예
起(기, 일어날) (8:6,4) = (주22)　　念(념, 생각할) (8:4,3) = (주22)
薩(살, 보살) (8:2,8) = (주22)　　善(선, 착할) (8:4,5) = (주22)



數(수, 셀) (8:4,19) = (주22)　　習(습, 익힐) (8:4,19) = (주22)

12) 再雕大藏經의 편찬을 주관했던 高麗의 高僧 守其가 宋本보다 契丹本을 높이 평가하여 이를 底本으로 삼은 것이 많은데, 이것도 契丹本의 한자 자형이 후대에 크게 유행한 원인의 하나였으리라 추측된다.

乘(승, 탈) (8:2,4) = (주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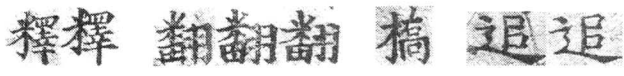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형이 일치하는 예는 많지 않다. (14)의 예처럼 同一 자형의 예는 적고 (13)의 예처럼 變形된 자형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宋本 계통의 『瑜伽師地論』과 契丹本 계통의 周本 『華嚴經』이 字形에서 사뭇 큰 차이가 나는 것임을 말해 준다.

현대의 자형과 차이가 나는 한자 중에서 이 자료에만 나오고 周本 『華嚴經』 卷第22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瑜伽師地論』에만 나오는 특이 한자

釋(석, 풀) (8:1,13)　　翻(번, 날) (8:15,11)

橋(교, 다리) (5:19,8)　　追(추, 좇을) (5:18,17)



望(망, 바랄) (8:11,22)　　將(장, 장차) (5:6,1)

答(답, 팥) (5:8,13)　　槃(반, 쟁반) (8:6,2) ('열반'의 '반')



强(강, 굳셀) (8:8,2)　　雪(설, 눈) (8: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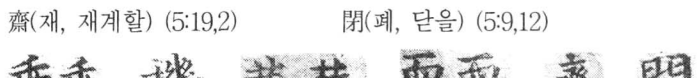
羞(수, 바칠) (8:10,10)　　纏(전, 얽힐) (8:5,3)



乖(괴, 어그러질) (8:14,1)　　機(기, 틀) (8:14,13)

奘(장, 클) (8:1,3)　　兗(연, 가냘플) (8:5,4)

齋(재, 재계할) (5:19,2)　　閉(폐, 닫을) (5:9,12)



慮(려, 생각할) (5:1,5)　縛(박, 묶을) (8:7,6)
壽(수, 목숨) (8:18,9)　餐(찬, 먹을) (8:11,21)



損(손, 덜) (8:9,7)　脫(탈, 벗을) (5:9,1)
遠(원, 멀) (8:7,14)　詔(조, 조서) (8:1,3)



譬(비, 비유할) (5:10,18)　顧(고, 돌아볼) (8:8,20)
兇(흉, 흉악할) (8:12,23)　瞋(진, 부릅뜰) (8:10,4)



殺(살, 죽일) (8:10,1)　煞(살, 죽일) (8:10,19)
汚(오, 더러울) (8:3,11)　族(족, 겨레) (8:12,15)



이들도 역시 宋本 계통의 한자에 異體字가 아주 많았음을 암시한다. 契丹本 계통의 周本『華嚴經』卷第22에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이체자를 찾아낼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宋本 계통의『瑜伽師地論』卷第5와 卷第8에는 略體字, 古字, 異體字가 특히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契丹本 계통의 周本『華嚴經』卷第22에서는 현대의 표준 자형과 같은 모양으로 자형이 크게 바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자 자형의 비교를 통해서도 宋本 계통의 문헌과 契丹本 계통의 문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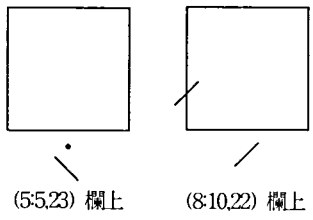
3. 角筆 口訣의 判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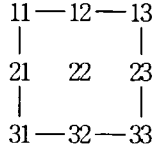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에는 角筆로 符號口訣이 기록되어 있다. 각필은 대나무, 사슴뿔, 상아 등을 뾰족하게 깎아 만든 필기도구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이용하여 종이를 눌러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문자를 기록하였다. 종이에 홈을 파서 기록한 것이므로 角筆 文字는 肉眼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때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角筆 Scope나 각종 고성능 카메라 그리고 디지털 CD 등의 최신 기기를 이용하여도 여전히 판독이 문제가 된다. 이 어려움을 부호의 위치에 관련된 것과 종류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부호를 해독할 때에는 부호의 위치와 종류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부호구결은 이 위치와 종류를 이용하여 언어 형식을 표기하기 때문이다.

3.1. 符號의 位置

부호의 위치는 漢字를 四角形의 文字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 사각 테두리를 假定하고 그 안이나 밖 또는 사각 線上에 부호를 기입함으로써 부호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자료에는 (16.가)의 예처럼 角筆로 그은 이 사각 테두리가 나온다.

(16) 가. 『瑜伽師地論』의 四角 테두리 나. 일본 훈점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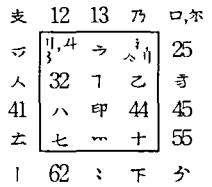


부호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日本의 訓點이 어느 위치에 오느냐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일본의 훈점은 (16.나)와 같이 漢字의 테두리 線上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자의 테두리를 (16.나)의 사각형으로 표기할 때, 일본의 훈점은 사변의 끝과 중간에 온다는 것이다(尹幸舜 2001:106 참조). 즉, (16.나)의 숫자 위치가 훈점이 오는 일반적 위치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부호가 오는 위치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일본의 표준적인 예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부호의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9군데가 변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瑜伽師地論』에서는 위치가 21군데(南豊鉉 2000나) 또는 그 이상으로 변별된다. 가장 최근의 논의인 장경준(2002)은 이론적으로 최대 35개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瑜伽師地論』의 부호 위치가 일본의 훈점에 비하여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漢字의 사각 테두리 線上에 훈점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瑜伽師地論』에서는 사각 테두리 선상에 부호가 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南豊鉉 2000나 참조). 사각 테두리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그어 그 안쪽에 온 點이나 線을 그 바깥쪽에 온 것과 구별한 예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李丞宰 2001나). 이 두 가지는 日本 訓點과 韓國 符號의 위치를 비교 혹은 대조할 때 반드시 거론해야 할 차이점이다.

(17) 가. 『瑜伽師地論』 부호의 위치 나. 單點의 點圖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61	62	63	64	65



이 차이를 감안하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위치를 정리하면 (17.가)와 같다. 이 위치의 單點은 (17.나)에 제시한 구결자에 대응한다. (17.나)는 南豊鉉(2000나), 윤행순(2001), 李丞宰(2001나), 김영욱(2001가, 2001나), 장경준(2002) 등의 업적을 참조하여 새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17.나)의 'ᄀᆞ, ᄒᆞ, ᄆᆡ, ᄉᆞᆫ' 등은 장경준(2002)의 독창적 견해임을 밝혀 둔다.[13]

(17.나)의 12, 25, 44, 55, 62처럼 숫자로 남겨 놓은 것은 예가 많지 않은 것들이다. 예가 많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독이 가능했을 것이다. 예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독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

雙點이나 線의 해독에 (17.나)의 單點 點圖가 기초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61과 65의 위치에 온 쌍점이나 선은 각각 'x+ㅣ[다]'와 'x+ᄆᆡ[며]'로 해독한다. 즉 先語末語尾가 무엇인지는 불확실하지만 語末語尾가 각각 '-다'와 '-며'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암시한다. 첫째, 單點의 해독이 해독의 기본이고 雙點이나 線의 해독은 이에 뒤따른다. 둘째, 부호의 종류가 처음에는 單點 하나였으나 차차 雙點이나 線으로 확대되었다.

(17.나)의 點圖는 하나의 위치에 複數의 口訣吐가 대응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2번 위치에는 'ㅣ[이], ㅐ[두], ᄋᆞ[아]'의 세 가지가, 24번 위치에는 'ᄉᆞ[사/삼], ᄉᆞㅣ[ᄒᆞ이]'의 두 가지가 대응한다.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위치에 하나의 구결토가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一對二 또는 一對三의 대응 예가 발견되는 것이다. 장경준(2002)에서는 'ㅣ[이]'로 읽히는 單點이 'ᄋᆞ[아]'로 읽히는 單點보다

13) 한편 單點의 위치와 달리 雙點이나 線의 위치는 덜 세분화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單點은 한 줄에서 다섯 개 위치로 구별되는 때가 있지만 쌍점이나 선은 넷을 넘지 않은 것 같다. 쌍점과 선의 해독이 單點에 비하여 무척 어렵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으나 이처럼 추정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래에 오는 것으로 보았다. 즉 22번 위치에는 'ㅇ[아]'와 'ㅛ[두]'만을 배정하고 그 아래 위치에[14] 'ㅣ[이]'를 배정하였다. 우리의 눈에는 그 위치 차이가 뚜렷한 것 같지 않으므로 세 가지 구결토의 위치를 한 군데로 몰아서 22번 위치라고 하였다. 아무튼 一對多의 대응 예가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3.2. 符號의 種類

부호의 종류를 정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 특히 雙點인지 線인지를 결정하기가 아주 어렵다. 『瑜伽師地論』에서는 線의 양쪽 끝이 선명한 點으로 나타나는데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은 이에 비하여 희미할 때가 많다. 더욱이 두 점 사이에 漢字의 黑墨 획이 있을 때에는 線인지 雙點인지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다. 또한 종이가 구겨져서 생긴 선인지 각필 선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때도 많다.

이와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하자. 다음 문장의 角筆을 [\]로 판독해야 할지 [·]로 읽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18) 가. 復 次[·]23[15] 云 何[·]34 雜 染 施 設 建 立[·]61 [·]15 (8:1,5)
나. 復 次ㅋ 何乙 雜染施設建立ㅣ {云}[16]ㅅㅜㅁ (8:1,5)

이 예에서 '立'의 左上에 온 [·]15는 마치 [\]15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침 그 위치가 종이가 구겨진 곳이라서 線을 그은 것인지 雙點을 찍은 것인지 얼른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예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15를 택한다.

14) 예컨대 32번 위치라고 할 수 있다.
15) [·]23은 점토의 종류가 單點 '·'이고 그 위치가 23 즉 2-3임을 뜻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점토의 위치를 (11.가)의 숫자로 대치한 것이다.
16) 不讀字는 이와 같이 { }로 묶어서 표기한다.

첫째, 디지털 CD본을 화면상에서 확대해 보면 [\]15일 가능성보다는 [·.]15일 가능성이 높다. 마침 종이가 구겨져 線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雙點을 찍었음이 미세하나마 관찰된다. 둘째, [·.]15의 예는 아주 많으나 [\]15는 이 예를 제외하면 눈에 띄지 않는다.[17] [·.]15는 다른 문장에서 모두 'ㅅㅗㅁ[호리고]'에 대응하는데 마침 이곳도 'ㅅㅗㅁ[호리고]'가 와야 할 곳이다. 따라서 [·.]15를 택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호의 종류를 얼른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디지털 CD본을 확대하여 정성스럽게 관찰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한다. 그런 다음 이와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가지는 문장을 찾아 상호 대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특히 이 두 번째 방법은 유용할 때가 아주 많다.

그런데 육안으로 판독할 때에는 하나의 단위 부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해독 과정에서는 둘 이상의 부호로 다시 분석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李丞宰(2001나)에서 이미 육안으로 판독할 때에는 雙點, 三點, 눈썹형 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해독할 때에는 이들을 분석하여야 함을 논의한 바 있다. 즉 쌍점 [··]처럼 보이는 것 중에는 單點 [·]이 두 번 複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三點 [∴]으로 보이는 것 중에는 單點 [·]과 雙點 [·.]의 복합으로 보아야만 해독이 자연스러워지는 예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의 눈썹형 [·\]은 單點 [·]과 逆斜線 [\]으로 분석하여 판독하는 것이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부호의 종류를 정리할 때 單位 點吐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함을 뜻한다. 이 단위 점토를 기본으로 삼고 이를 상호 複合함으로써 부호의 종류를 늘려 나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단위 점토 확인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정하여 말하기

17) 김영욱 교수가 조언해 준 것이 크게 참고가 되었다.

어려우나 일단 單點 [·]과 單線 [-], [|], [/], [\] 등이 단위 점토에 속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李丞宰 2001다, 2002).

4. 『瑜伽師地論』의 符號

李丞宰(2001가)에서는 符號를 符標와 點吐의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점토는 언어 형식을 표기한 것으로서 판독과 해독이 끝나면 문자화한다. 이에 반해 부표는 판독과 해독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으로서 언어 형식을 표기한 것이 아니다. 부표는 판독과 해독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담당한다.

4.1. 符標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에는 각종 부표가 아주 많이 나온다. 晉本『華嚴經』 卷第20이나 周本『華嚴經』 卷第22에는 부표에 속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瑜伽師地論』 자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대적 조류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도 있다. 『瑜伽師地論』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法相宗의 경전이고 『華嚴經』은 華嚴宗의 경전이다. 이 차이 때문에 부표를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瑜伽師地論』의 點圖는 『華嚴經』의 點圖와 크게 차이가 나지만 화엄종의 경전인 周本『華嚴經』과 晉本『華嚴經』의 點圖는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南豊鉉・尹幸舜・李丞宰 2001). 반면에 시기적 차이를 강조할 수도 있다. 즉『瑜伽師地論』은 11세기 전반기의 각필 구결 자료인 데에 비하여 晉本과 周本『華嚴經』은 11세기 후반기 혹은 그 이후의 각필 구결이다. 이 시기상의 차이에서 부표의 사용 예가 줄어든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후대로

내려갈수록 부표의 사용 예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南豊鉉(2000가)가 소개한 14세기의 『法華經』 부호구결 자료에는 부표에 해당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宗派의 차이와 時期의 차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여야 할지 더 연구해 볼 문제이다.

李丞宰(2001나)에서는 『瑜伽師地論』에 나오는 부호 중에서 부표에 속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9) □ ☞ 漢字의 테두리 (5:5,23의 欄上에, 8:10,22의 欄上에)
(20) ㄱ ☞ 下向 逆讀線 (5:1,6의 '受'에, 8:1,5의 '由'에)
ㄴ ☞ 下向 逆讀線 (5:4,6의 '摧伏'에, 8:4,17의 '由'에)
(21) / ☞ 上向 逆讀線 (5:7,19의 '已'에, 8:10,16의 '命'에)
\ ☞ 上向 逆讀線 (5:6,11의 '穢'에)
(22) ／ ☞ 校正符號 (5:6,9의 '天'에, 8:2,22의 '界'에)
＼ ☞ 校正符號 (5:14,3의 '故'에, 8:6,14의 '中'에)
(23) | ☞ 合符
二字用 (5:4,21의 '受用', 8:3,20의 '親近')
三字用 (5:5,21의 '三種樂', 8:15,4의 '可樂語')
四字用 (5:14,10의 '自生和合', 8:16,20의 '立如是論')
(24) 가. /⌐ ☞ 境界線 (5:4,15 '一'의 위에)
나. ㄱ ☞ 境界線 (5:4,10 '法'의 右上에)
다. ㅣ ☞ 境界線 (5:8,17 '樂'의 右下에)
라. ㄴ ☞ 境界線 (5:9,5 '害'의 左下에, 5:11,13 '导'의 左下에, 8:5,17 '怖'의 左下에)
마. — ☞ 境界線 (5:12,12 '用'의 밑에, 5:17,10 '轉'의 밑에, 8:4,16 '事'의 밑에, 8:5,15 '了'의 밑에)
바. ⌣ ☞ 境界線 (5:7,20 '唯'의 밑에, 5:13,4 '受'의 밑에, 5:14,3 '是'의 밑에, 5:20,1 '與'의 밑에)
사. ^ ☞ 境界線 (8:7,8 '心'의 右上에)
(25) 가. — ☞ 句讀線 (5:9,14 '害'의 밑에, 8:4,16 '事'의 밑에)

나. ⌣ ☞ 句讀線 (8:8,8 '流'의 밑에, 8:13,7 '行'의 밑에)

(26) 가. 0 ☞ 包形線 (5:10,23의 '者'에, 5:9,11의 '處'에)

나. ○ ☞ 包形線 (5:8,21의 '一'에)[18]

이 중에서 (21)의 上向 逆讀線은 재고를 요한다.[19] 이것 중에는 點으로 시작되는 것이 많은데 이 點이 있으면 오히려 해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장경준(2002)가 논의한 것처럼 이 上向線은 點을 제거하라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22)의 교정부호도 재고를 요한다.[20] (22)의 對角 長線에 대하여 막연히 '잘못된 점토가 있음을 지적하는 교정부호' 정도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장경준(2002)가 논의한 것처럼 斜向 對角 長線 [/]은 해당 한자에 점토를 모두 기록하면 하나의 위치에 둘 이상의 점토가 중복될 때에 주로 사용하였다. 하나의 위치에 둘 이상의 점토가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의 점토를 앞에 오는 한자에 나누어 기록할 때에 이 [/]을 사용하였다. 逆斜向 對角 長線 [\]은 점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의 점토를 뒤에 오는 한자로 옮겨 적었을 때에 주로 사용하였다(장경준 2002). 따라서 對角 長線을 막연히 교정부호라고 하는 것보다는 '分割하여 記入하였음'을 뜻하는 指示線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6)의 句讀線도 재고를 요한다.[21] '事'(8:4,16)의 밑에 온 水平 長線 [-]은 句讀線이라고 하는 것보다 뒤에 오는 '唯'의 13번 위치에 온 斜線 [/]이 '事'에 속하는 점토임을 지시한다(장경준 2002). '流'(8:8,8)의 밑에 온 曲線 [⌣]도 '流'의 43번 위치에 온 單點 [·]이 약간 위로 올

18) 이 자료는 여기에서 추가한 것이다.

19) 이처럼 기술한 것으로는 尹幸舜(2001)과 李丞宰(2001나)가 있다.

20) 李丞宰(2001가)에서는 '교정부호'로 尹幸舜(2001)에서는 '수정부호'로 명명한 바 있다.

21) 尹幸舜(2001)에서는 '句切線', 李丞宰(2001나)에서는 '句讀線'이라 하였다.

라가야 함을 나타내는 선이다. '行'(8:13,7)의 밑에 온 曲線 [⌣]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句讀線으로 명명한 것들은 사실은 補助線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2. 點吐

『瑜伽師地論』의 점토는 『華嚴經』의 점토에 비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符標와는 對蹠的이다. 예컨대 晉本 『華嚴經』 卷第20이나 周本 『華嚴經』 卷第22에서는 눈썹형과 느낌표형 점토가 자주 발견되나 『瑜伽師地論』에서는 무척 찾기가 힘들다.

李丞宰(2001나)에서는 肉眼 移點本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점토의 종류를 제시한 바 있다.

(27) · ☞ 單點
(28) ·· : .· ·. ☞ 雙點(水平, 垂直, 斜線, 逆斜線의 네 방향)
(29) ∴ ∵ ☞ 三點
(30) - | / \ ☞ 線(水平線, 垂直線, 斜線, 逆斜線)
(31) ¯·, ·\, \·, /·, ·/ ☞ 눈썹형
(32) ·-, ./, ˙丶 ☞ 느낌표형

그러나 광학 사진본과 디지털 CD본을 이용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면 눈썹형이나 느낌표형이라고 하기 어려운 예들이 아주 많다. 앞에서 이미 논의한 점토의 分析 可能性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 예는 줄어들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三點을 들 수 있다. 李丞宰(2001나)에서는 三點을 單點 [·]과 雙點 [·.]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아 (29)처럼 三點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광학 사진본과 디지털

CD본으로 다시 확인하고 점토의 分析 可能性을 검토해 본 결과 『瑜伽師地論』의 점토 종류에서 三點을 제외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31)의 눈썹형과 (32)의 느낌표형 중에도 목록에서 제외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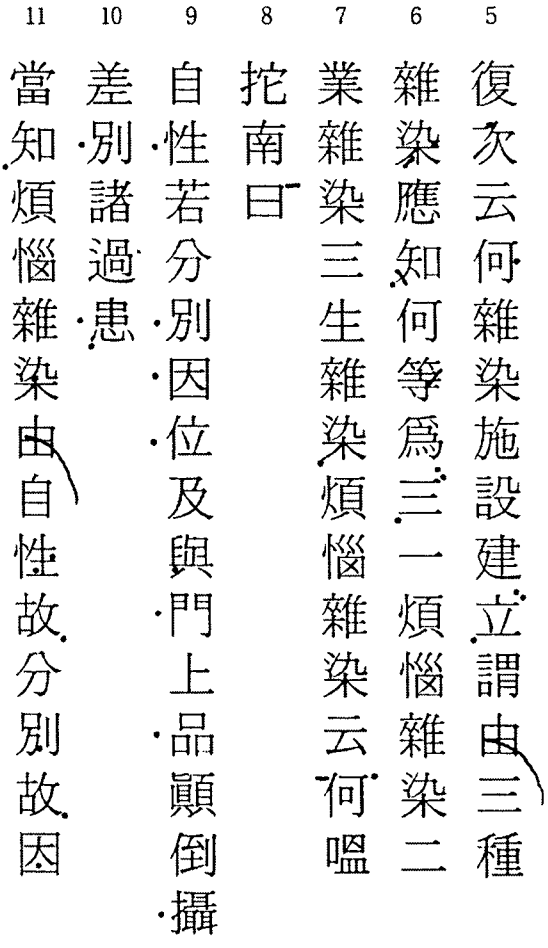
5. 符號口訣 判讀의 例示

부호구결 자료의 판독 결과를 학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 일이 쉽지 않다. 角筆로 종이를 눌러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原本을 복사해도 點과 線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角筆 口訣을 손으로 移點하여 移點本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移點本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本文의 寫眞版에다 移點을 하는 방법이요, 둘째는 현대의 컴퓨터 활자를 이용하여 本文을 새로 제작한 다음 여기에 移點을 하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黑白 사진판을 이용하면 종이에 흠이 있는 곳과 점토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종이에는 색이 바랜 곳, 주름진 곳, 섬유질이 떨어져 나간 곳이 있고, 각필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종이가 눌려 들어간 곳도 적지 않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 移點을 하게 되면 종이의 缺點과 移點한 符號가 잘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흑백 사진판에 綠色 색연필로 이점함으로써 符號를 색깔로 구별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 때에는 2색 인쇄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둘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3)『瑜伽師地論』卷第八 第一張



둘째 방법은 종이의 흠이나 구겨진 곳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單色으로 인쇄하여도 기입해 넣은 점과 선을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뒤따른다. 현재의 컴퓨터 한자는 그 자형이 本文의 한자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點의 위치를 정확히 옮

기는 것이 쉽지 않다. 예컨대 (13)의 '處'字는 현대 컴퓨터의 '處'字와 자형이 다른데, 이 差異로 말미암아 點과 線을 어느 位置에 찍어야 할지 난감해지는 때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현대 컴퓨터 한자에 이점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33)과 같다.

(33)과 같은 방법으로[22] 이승재는 肉眼 移點本을 만들어 이미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이점본에는 잘못된 곳이 많아서 새로 수정본을 만들기로 하였다. 수정본은 光學 寫眞本과 디지털 CD本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수정본은 A4 용지로 83쪽에 달하므로 이 논문에 다 수록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별책으로 작성하여 학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6. 마무리

지금까지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의 각필 부호구결을 조사하고 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 보았다. 이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삼기로 한다.

이 자료는 初雕大藏經의 일종이다. 이것은 書體, 避諱字, 23行 14字의 版式 등으로 증명된다. 특히 피휘자를 통하여 이 자료가 開寶勅板의 宋本 계열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再雕本을 편찬할 때 底本으로 이용되었다. 板式과 漢字의 字形이 상호 一致한다는 점에서 이렇

22) 이 예에서도 현대 컴퓨터를 이용할 때의 短點이 잘 드러난다. 『瑜伽師地論』 卷第8의 1장 9행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5자로 되어 있다. 원래는 1행 당 14자가 원칙이지만 五言絶句의 轉句까지를 한 행에 넣다 보니 15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이 9행의 15자를 14자에 맞추어 정리하기가 무척 어렵다.

게 말할 수 있다.

이 자료의 本文 漢字에는 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略體字, 古字, 異體字 등이 다양하게 쓰였다. 이들과 周本『華嚴經』卷第22에 나오는 한자를 비교해 보면『瑜伽師地論』에 나오는 한자가 古形임이 금방 드러난다. 이를 통해서도 初雕本『瑜伽師地論』이 周本『華嚴經』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瑜伽師地論』의 한자는 개보칙판의 송본 계열에 속하고 周本『華嚴經』의 한자는 거란본 계열에 속한다. 그런데 後代에 流行한 것은 契丹本 계열의 한자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傳承되었는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필 부호구결을 판독할 때에는 부호의 위치와 종류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작업이 쉽지 않다. 論者에 따라서 부호의 辨別的 位置와 單位 點吐의 種類가 서로 다르다. 이를 設定하는 일은 부호구결 전체의 解讀 作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다.

부호의 변별적 위치는 일본의 훈점 위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일본의 훈점에 비하여 설정되는 위치가 아주 많은 편이다. 둘째 일본에서는 한자의 사각 테두리 線上에 訓點이 오지만 이 자료에서는 원칙적으로 테두리의 안이나 밖에 符號가 온다. 한편 하나의 位置에 다종의 口訣吐가 대응한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부호의 종류를 확정할 때에는 특히 雙點과 線을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럴 때에는 디지털 CD본을 확대하여 정성스럽게 관찰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한다. 그런 다음 이와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가지는 문장을 찾아 상호 대조해 보아야 할 것이다.

『瑜伽師地論』에서는 부표에 속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른 각필 자료에서는 부표의 종류와 사용 예가 현저히 줄어든다. 李丞宰(2001)에서 上向 逆讀線이라고 분류한 것 중에는 逆讀

의 기능이 아니라 '點 除去'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또한 막연히 교정부호라고 칭한 것도 사실은 하나의 漢字에 오는 여러 가지 點吐를 앞이나 뒤에 오는 漢字에 分割하여 記入하였음을 뜻하는 符標이다. 句讀線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補助線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정은 장경준(2002)의 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둔다.

점토에 속하는 것 중에는 分析 可能性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李丞宰 2001나). 특히 三點은 대부분 單點과 雙點으로 분석되므로 單位點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雙點과 눈썹형 그리고 느낌표형 점토는 분석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각필 구결 자료를 이점하여 제공하는 기술적 방법이 쉽지 않음을 논의하였다. 본문 사진판을 이용할 때에는 원래 資料의 缺點과 角筆 符號가 구별되지 않고, 현대 컴퓨터 활자로 판을 짠 다음 여기에 이점하는 것은 點의 위치를 정확하게 옮기기가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문 사진판에 컬러로 이점하는 방법이지만 보급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참고문헌

김영욱(2001가),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三의 口訣에 대하여」, 『제24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pp.137~143.

_____(2001나), 「『瑜伽師地論』 점토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57~77.

_____(2001다), 「『瑜伽師地論』 雙點吐의 解讀 方法 硏究」,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pp.215~229.

南豊鉉(2000가), 「高麗本 『法華經』의 點吐 順讀口訣에 대하여」, 『제23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口訣學會.

_____(2000나),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pp.5~45.

_____(2001가), 「口訣의 種類와 그 發達」, 『漢文古版本과 受容(訓讀)』(日本 北海道大學 워크샵 發表論文集. pp.11~20.

_____(2001나),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の種類とその讀法について」, 朝鮮學會(日本 天理大學) 공개강연 원고.

_____·尹幸舜·李丞宰(2001), 「韓國의 點吐 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 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語學會. pp.103~126(1-24).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167~197.

윤행순(2001), 「한국의 부호구결과 일본의 오코토점에 대하여」, 『漢文古版本과 受容(訓讀)』(日本 北海道大學 워크샵 發表論文集. pp.99~106.

李丞宰(2000),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pp.135~152.

_____(2001가),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1~32.

_____(2001나),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pp.229~250.

_____(2001다),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國語學』 38, 國語學會. pp.89~116.

_____(2002), 「符號의 字形과 制作 原理」, 『문법과 텍스트』(고영근선생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울대출판부. pp.61~78.

장경준(2002),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년 2월) 발표 원고.

정재영(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33~56.

角筆符号口訣資料に関する調査研究

－誠庵本『瑜伽師地論』巻第5と巻第8を中心として－

李丞宰・安孝卿

本稿では初雕大蔵経の一種である誠庵本『瑜伽師地論』巻第五と巻第八の角筆符号口訣を調査しながら発見したいくつかの特徴を指摘した。この資料は再雕本の底本として利用された。板式及び漢字字型が同じなのでこう言うことができる。この資料の本文の漢字には後代にあまり使われない略体字・古字・異体字などがよく見られる。これらと周本『華厳経』巻二十二の漢字を比較し『瑜伽師地論』の漢字が古形であることを述べた。また、角筆符号口訣を判読する時、注意すべき点を符号の位置と種類に分析整理した。その中で判読の難解性を強調した。他の資料に比べて『瑜伽師地論』では符標に属するものが多様に使われている。一部の符標の機能を修正しながら点吐の分析の可能性をさらに強調した。

*キーワード: 角筆、符号、口訣、点吐、瑜伽師地論、華厳経、大蔵経